

성인에서의 상악골 협착은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나 많은 경우 수술적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춘기 최대 성장기 이후 양측 구개판이 정중 구개 봉합부에서 긴밀하게 맞물리므로 구개 확장의 예측 가능성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성인 환자에서는 대개 저속 확장이 권장되고 있으나, 골격적 확장이 불확실하며 구치의 불필요한 협착 경사 이동을 유발하므로 시도하기가 쉽지 않다. 구개부에 미니스크류를 이용하여 강력한 고정원을 형성함으로써 저속 확장 시에도 확실한 구개부의 분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Hyrax RPE 및 여기에 연결된 다수의 미니스크류를 통해 성인에서 구개 확장이 적응이 되는 경우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교실에서 초기에 surgically assisted RPE의 적응증이었으나 미니스크류를 이용하여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확장을 완료한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니스크류의 구개 부위 식립시 필요한 해부학적 배경과 본 교실에서 이용한 RPE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약 2개월 내에 구개 확장이 완료되었고 정중 이개는 임상적 및 방사선학적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치성 확대가 동반 되었으나 이후의 치료 기간을 통해 적절한 협설 경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성인에서의 구개 확장을 요하는 증례에서 매우 확실성 있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T-07 테이블 클리닉

Digital image width/length ratio distortion according to the LCD monitor types and resolutions

(LCD 모니터 종류 및 해상도 설정에 따른 디지털 이미지의 가로/세로 비율의 왜곡)

장수호, 최갑림, 임성훈, 김광원 | 조선대 교정과

교정 영역에서는 환자의 구강내 사진과, 구강외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로, 그리고 환자의 동적인 미소를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이들 자료를 LCD 모니터 상에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LCD 모니터 상에 나타나는 환자의 이미지의 가로/세로 비율은 실제 원본 이미지의 가로/세로 비율과 다르게 디스플레이 되어 얼굴이 길게 또는 짧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모니터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이미지의 가로/세로 비율의 차이를 보이게 되며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가로/세로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미지를 크기가 다른 모니터에서 같은 해상도로 관찰하였을 때도 가로/세로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본 실험에서는 수종의 LCD 모니터에서 각기 해상도를 달리하여 실제 사물의 가로/세로 비율과 디지털 이미지의 가로/세로 비율의 변화의 차이를 조사한 후, 이미지의 왜곡을 가장 적게 모니터에 출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T-08 테이블 클리닉

Orthognathic surgery for total facial esthetics

황선미, 김정기, 전영미 | 전북대 교정과

심미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한 골격 부조화의 해소 뿐 만아니라 전체적인 안모의 균형을 요구하는 증례가 많아지고 있다. Dr. Sarver 역시 악교정 수술의 일차 목표가 심미성은 아니지만 치료의 성공을 판단하는 criteria로 skeletal deformity의 기능적인 면에서의 correction 뿐만 아니라 심미성의 증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악교정 수술과 함께 성형외과적인 수술을 동반하면 최상의 심미성을 얻을 수 있고 전신마취와 수술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전체적인 치료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환자의 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성형외과와 협진하여 rhinoplasty, submental liposuction, rhytidectomy, lip lift and augmentation, malarplasty, mandibular angle reduction, genioplasty 등의 기술을 악교정 수술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특히 광대뼈나 하악의 수술은 성형외과 협진 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교정과에 내원한 골격 문제를 가진 환자의 치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방사선 분석 후 골격 정상치만을 고려한 상하악의 악교정